

더 정확하게... 드론으로 재난관리

LX-행안부, 협약 체결

LX한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9일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공분야 드론전담 교육기관인 LX는 그동안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기반시설 점검 등 국토조사와 지적재조사 재난관리에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드론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해왔다.

LX가 드론 영상을 활용해 3D 모델로 구현한 서비스는 기존 항공기 촬영과 비교해 해상도는 10배, 위치·사물의 정확도는 3배, 소요시간은 절반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재난관리 분야에서 피해지역 현장 시범조사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이에 LX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강원도 대설 피해지역(춘천·홍천)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현장 시범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분야의 드론 활성화를 위해



LX 김정렬 사장(왼쪽)과 행정안전부 김희경 차관(오른쪽)이 지난 9일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도 개선·계획 수립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의 실시간 영상 활용을 시·도 및 시·군·구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LX는 이를 토대로 85대 드론과 188

명(2020년 기준)의 드론 전문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현장 드론영상을 공유하며 대규모 재난 피해지역의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김정렬 사장은 "드론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실현'에 양 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어업인 “보건의료·주택·자녀교육문제 해결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전국 농어촌에 거주하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교육, 지역사회와 공동체 생활 부문에 걸쳐 복지실태를 조사한 '2020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 해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근거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407호)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 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 이주 의향이 있는 50~60대는 농촌 안에서 이동을 원했으며, 주된 이유는 '주택'이었다. 반면, 30대와 70대는 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했는데 30대는 '직업(경제)', 70대 이상은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농어업인들은 농촌 생활 부문 중 보

농진청 복지실태조사 결과

건의료(79.2점), 안전(78.7), 복지서비스(78.2)가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및 경제활동 여건' 부문의 중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22%(2015년 29.5%)를 차지했고 가구당 평균 학생 수는 1.6명이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학력은 자녀 성별과 관계없이 대학(2년제)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아들 58.8%, 딸 63.2%)이 5년 전보다 높았다. 다른 지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낸 가구(18.0%)의 주된 이유는 '해당 학교가 없어서(80.9%)'였다. 다른 지역 유학은 중·고등시기에 시작됐으며,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40~50대의 교육 여건 만족도가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농촌 학생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77.2%),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32.7만 원이었고, 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26.5%에 달했다. 교육비 중 보충교육비 부담(41.2%)이 가장 크다고 답했는데, 5년 전보다 월평균 7.6만 원 늘어 대도시 가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농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우수교사 확보(31.4%)' 등 기반(인프라) 확충과 교육프로그램(강사지원)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5년 전에 비해 '나후된 편(29.8%)'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발전된 편(21.4%)'이라고 느끼는 경우보다 다소 높았다. 지역개발사업 중 '일자리 창출'과 '도로 확충', '하천 정비' 등에 주민 지지와 효과가 높았으며 30대 이하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부부의 노후 생계 돌봄 주체는 '모든 자녀(46.0%)'이며,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한다(57.7%)'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57.5%)이 2015년부터 10.9%p 증가

했다.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녀의 대학교육비(72.9%)', '결혼 비용(51.7%)'에 이어 '결혼 후에도 돌봐야 한다'라는 답변이 40.0%로 2015년부터 9.1%p 늘었다. 결혼관을 묻는 질문에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37.2%)'라고 답한 비율이 2015년부터 14.7%p 증가해 결혼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농촌 주민들의 종합생활 만족도는 지난해 54.3점과 비슷한 54.6점으로 나타났다. '환경·경관(평균 67.5점)', '안전(평균 65.4)', '이웃과의 관계(62.7)' 등 농촌의 장점이 드러나는 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일자리와 주택, 40대는 자녀교육과 주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방안도 요구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정적인 농촌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자립형 라이브커머스 새 장 연다

스타인티비엔터테인먼트-미스리시피치, 전략 협약

국내 최고의 '라이브커머스' 회사인 (주)스타인티비엔터테인먼트(대표 안성호)가 전북도 최고의 스피치 아카데미인 미스리시피치아카데미(정아영 대표)와 본격적인 모바일쇼스트양성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강생들에게 최대의 경험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 솔루션을 장착했다. 특히, 교육과 동시에 실제방송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양사가 전주 시를 기점으로

다양한 라이브커머스의 사업화를 어떻게 펼쳐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주지역의 모바일쇼스트들의 교육과 양성을 미스리시피치가 운영을 한다면 스타인티비는 이들의 방송과 취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지원해주고 보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체결돼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안성호 스타인티비대표는 "서울은 이미 쇼호스트에 대한 시장이 포화상태로 지방에서 힘들게 오가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면서 "이들을 위해 전주를 기점으로 충청권과 호남권 전체를 자립형 쇼호스트 1000명을 양성해 지자체에서도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아영 미스리시피치 대표는 "라이브커머스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일단 지역 자체적으로 쇼호스트 양성을 하고, 이들을 지역특산물 조합과 한우마을의 다양한 커머스 제품들과 연계하면 지자체 자립 라이브커머스가 가능하겠다고 확신했다"면서 "최대 고민은 수강생들을 양성한 후, 그들의 취업을 위한 출구 전략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타인티비와의 전략적협력을 맺어 현재에 다다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제공, 순창 순화지구 실수요자택지 공급 공고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순창 순화지구 내 실수요자택지(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거·유통시설용지) 37필지를 공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순창 순화지구는 반경 1km 내 순창읍 내 주요시설(순창군청, 읍사무소, 초·중·고교, 터미널)이 위치해 있으며, 국도24호 및 국도27호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타시·군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공급토지 및 공급금액은 단독주택용지 23필지, 준주거용지 11필지, 공동주택용지 2필지, 유통시설용지 1필지이며, 자세한 공급조건 및 지구단위계획 등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이번 입찰은 한국자민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진행되며 공동주택용지 1필지(공용)는 추첨의 방식으로, 그 외 필지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게 된다.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28일 10시부터 27일 오후 4시까지다. 낙찰자 명단은 28일 오후 5시 이후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계약체결은 오는 5월 3~4일(순창 분양사무소), 6일(전북개발공사 5층 보상분양파트)에서 진행된다.

공사는 이번 토지공급분과 별도로 민성지구 미분양용지(7필지)와 전북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 의료 및 종교용지를 선착순으로 수의계약 공급을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기업과 동반성장 노력 강화”

새만금개발공사, 스마트 수변도시 동반성장 협의회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총 1,225억 원을 투입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에 전북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일 '스마트 수변도시 동반성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에 참여 중인 발주청, 도급사, 하도급사 등 6개 기업이 참여했다.

하도급 60% 이상을 전북지역 업체에 할당하고, 공사용 자재 85% 이상을 지역에서 조달하는 한편, 전북도민을 우선 고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사는 각 참여기업의 이행목표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행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공사에 마련한 지역기업 우대방안은 '전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근거로 지역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현재 매립공사에 참여하는 공동도급업체 중 전북지역 기업은 30% 이상으로, 매립공사업체 선정 당시 '새만금 사업'에 참여 중인 발주청, 도급사를 통해 공동 도급 권장사항을 달성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실시하는 조치이다.

강팔문 사장은 "전북기업과의 동반성장은 공사가 추구하는 새만금형 사회적 가치"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전북경제 회복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넓은 집, 새로 고쳐드립니다’

농협 '농가희망봉사단' 김제 승반마을 농가 대상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



농협중앙회의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봉사단'은 지난 9일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봉사단원 40여명과 함께 김제시 승반마을 농가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8400여명이 801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수리, 보일러 및 급수배관 교체, 전기배선·전등교체 등 무료 봉사활동을 실시해 고령 농업인,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가정에 아늑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농협은 창립 이후 농업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번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비롯한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협형 케어(케어) 유능장) 도입 및 육성 등 다양한 나눔경험활동 실시로 농업인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